

한국여성미학의 사회사④ 〈가난의 또다른 해석〉

향토성으로 위장된 가난한 민중의 삶

강성원/미술평론가



박항섭 〈가을〉(59년작): 해방이후에 그려진 이 작품이 서구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김기창의 인물느낌이 식민지 시대 나온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하듯, 이 여인들의 인물모습과 옷차림, 자세 전체 화면 구도는 어디 먼 곳 열대섬의 느낌을 자아낸다.

가난이 죄라고 누가 말했던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과는 다른 뭔가 먼 곳의 이국 풍경처럼 본 작가가 있는가 하면, 가난에 대한 이와 또 다른 회화적 해석의 한 줄기가 우리 미술사의 전통을 형성한다.

이국정서로 민중적 삶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서구지향적 미술인들이 당시 지녔던 낭만주의적 미술관의 한 태도였다면, 가난한 삶에 배인 민중들의 고단한 정서를 향토적 서정성으로 해석하는 예술관행도 궁극적으로는 낭만주의적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공간을 제외하고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 이후 우리 미술전통과 지식인 대중들, 근대화에 물들어가는 대중들의 예술관이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정책에 관련된 바 크다.

식민지 시대 일제 총독부는 당시 선전(鮮展)의 심사기준과 혹은 영화검열 등을 통해서 반사회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을 철저히 식민지 조건의 문화내용에서 배제해 나갔다. 일본 자본주의의 위기를 반영하는 자국내의 퇴폐적 모더니즘 사조의 유행과 1917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 등의 상황은 봉건성과 제국주의적 선전 강화를 더욱 더 식민지 문화정책의 근간으로 물고 나가게 했다.

예술은 식민지 수탈의 전위거나 기능적 근대성의 전위로써 혹은 근대화의 후위로서만 기능할 수 있었다. 예술, 그것은 이곳에서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는 일종의 관념주의의 틀로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근대화 여명기에 근대적 산업발전과 계몽의 혜택을 못받

시의 실제 우리 농촌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낙네의 모습에 비교해 보라치면, 이 모습들 사이에 한 두 컷의 또 다른 영상이 삽입되어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즉 이 그림의 배후로 이 그림의 묘한 뉘앙스를 바쳐주는 사회적 현실이 어떤 것인가가 어렵지 않게 연상된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농촌의 가난한 풍경을 단순히 형태학적으로 이국정서 바라보듯 하는 당시 화가들의 세계관과, 문명이 발달한 서구인이 미개지

김기창 〈가을〉(34년작): 통통하게 살이 붙은 모자의 모습과 우리 들녘의 풍요로운 결실이 강조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쓰인 채색화 기법은 우리 향토성 묘사에 어울리는 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에도 불구하고, 봉건성 하먼들 농민이 차지하는 몫으로 진술된다. 봉건성에 대한 향수나 부정적 비판이나 할 것 없이 농민이 특히 여자(이들은 그 사회에서 늘 착취당하던 사

람들임에도 불구하고)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현재 이를 고도의 예술적 감수성으로 향수하는 주체는 어찌됐건 근대성의 혜택을 받은 지배층이거나 지식인 남성들이다. 김기창의 〈가을〉(1934), 박항섭의 〈가을〉(1959)도 같은 계열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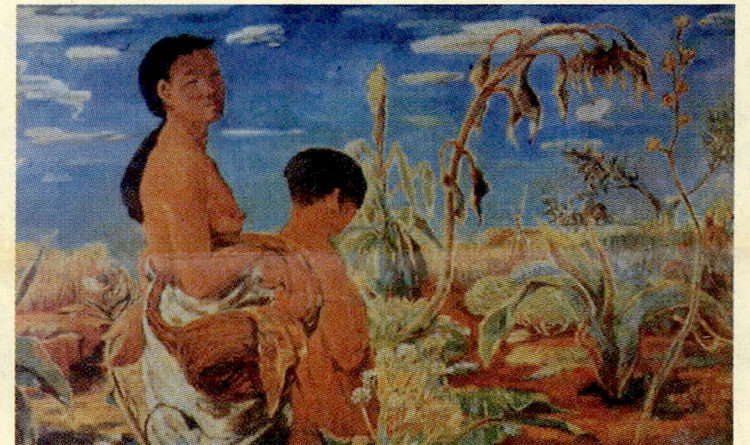
가난한 풍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우리민족 고유의 역사적 토대는 제거하고 오로지 토속적 향토성의 정서만을 지나간 시절의 좋았던 봉건성에 대한 향수로 미화시키는 것이다

은 채 민족 고유의 삶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냄새 중에서도 민족적, 역사적 토대를 제거시키고 오로지 토속적 향토성의 정서만을 지나간 시절의 좋았던 봉건성에 대한 향수로 미화시키는 것이 우리 미술사의 전통에 나타난 가난한 풍물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방식이다.

이인성의 〈가을의 어느날〉은 토속적 향토성을 길게 강조한 작품이다. 1933년에 제작된 이 작품 중의 풍경을 당

역의 원주민을 하나의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20세기 서구미술의 한 성향이 이인성 개인의 예술행위 속에 어떻게 층위지워져 있는가가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전근대성은 우리 민족의 향토적 서정이 배어 있는 정신적 고향과 같다고 보는 관점도 적당히 섞여 있다. 봉건성을 발전시켜나간 주체는 봉건 사회의 지배세력이었음



이인성 〈가을의 어느날〉(33년작): 이 작품에서 그린 풍경과 당시의 우리 농촌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낙네의 모습 사이에는 한 두 컷의 다른 영상이 삽입되어 있다.